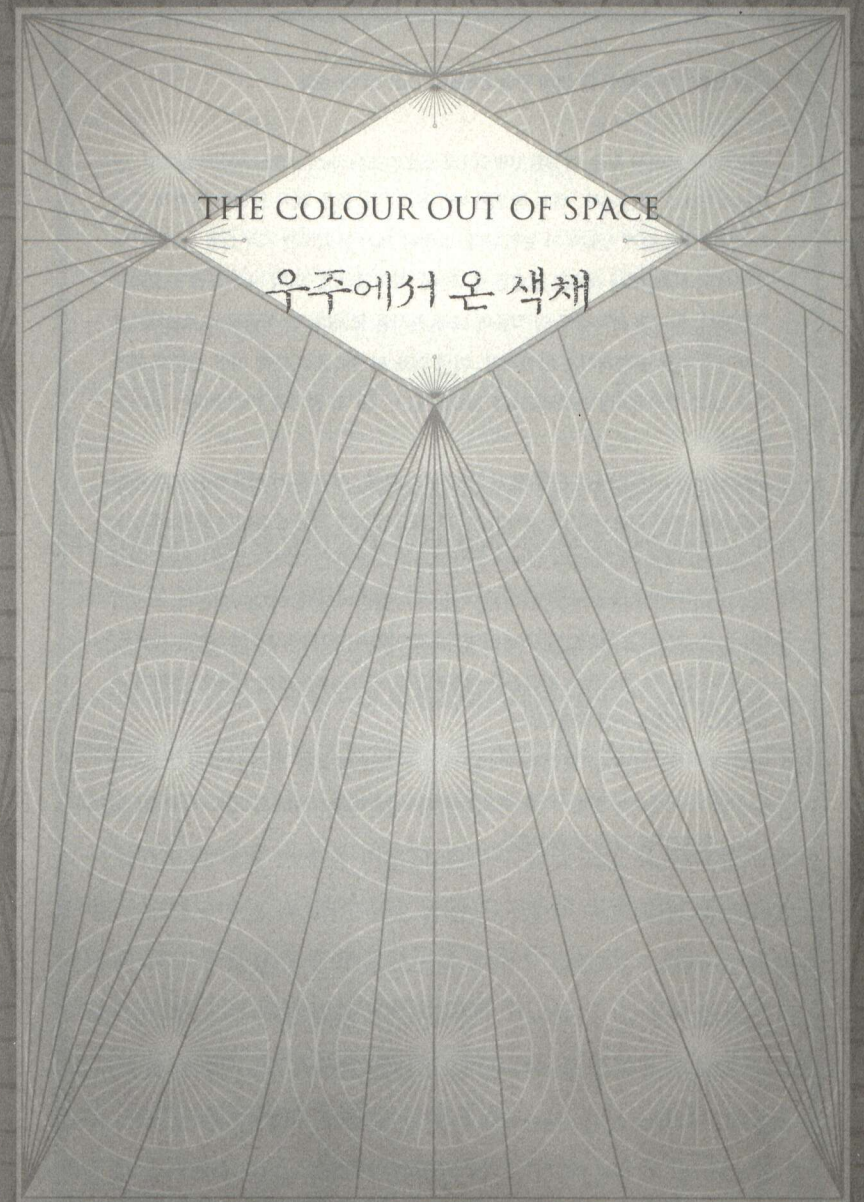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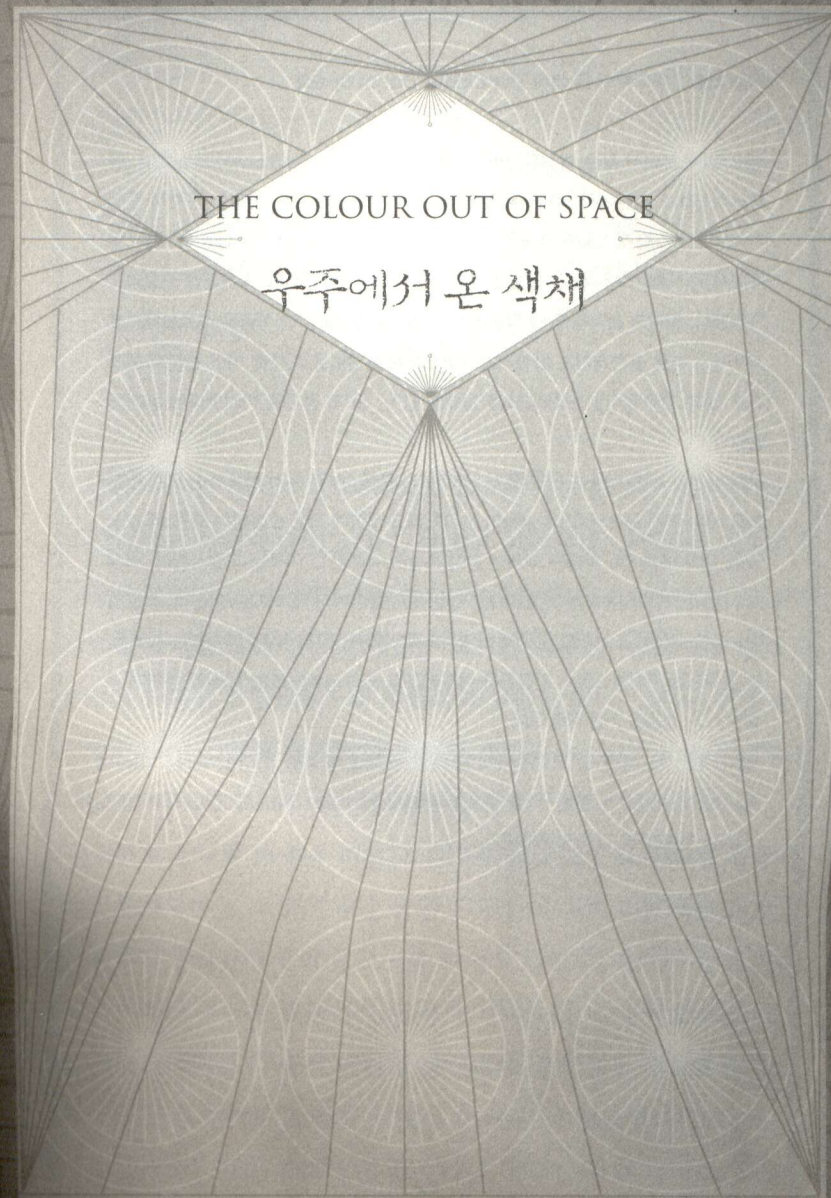
나지 않았지. 내 방식, 즉 인공 보존을 행해야 했어. 자네도 알겠지만,
나는 18년 전 그때 이미 죽은 몸이네.”

17) 왕들의 계곡(Valley of Kings): 이집트 테베 서부의 좁고 긴 골짜기로, 투트모세 1세
부터 람세스 11세에 이르는 파라오의 묘가 있다. 이곳에 있는 60기 가량의 무덤은
대부분 도굴되었으나, 1922년에 영국인 하워드 카터(Howard Carter)에 의해 발굴
된 투탕카멘의 무덤은 완전히 보존된 상태여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나지 않았지. 내 방식, 즉 인공 보존을 행해야 했어. 자네도 알겠지만,
나는 18년 전 그때 이미 죽은 몸이네.”

17) 왕들의 계곡(Valley of Kings): 이집트 테베 서부의 좁고 긴 골짜기로, 투트모세 1세
부터 람세스 11세에 이르는 파라오의 묘가 있다. 이곳에 있는 60기 가량의 무덤은
대부분 도굴되었으나, 1922년에 영국인 하워드 카터(Howard Carter)에 의해 발굴
된 투탕카멘의 무덤은 완전히 보존된 상태여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작품 노트 | 우주에서 온 색채 The Colour Out of Space

1927년에 쓰여져 같은 해 9월 《어메이징 스토리즈 Amazing Stories》에 실렸다. 러브크래프트는 서한에서 “제가 창조한 대부분의 괴물들은 제가 원하는 우주적 주제 의식을 만족스럽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유일하게 자부심을 느끼는 「우주에서 온 색채」에서 색으로 표현된 존재만은 예외입니다.”라며 이 작품을 최고라고 자평했다. 평단과 독자들도 이 작품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이 작품은 러브크래프트 사후까지 따로 출간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대표 단편집을 비롯해 여러 선집에 실리기도 했다. 《어메이징 스토리즈》에 실렸을 당시, SF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런 평가가 나온 이유는 분명하다. 「크툴루의 부름」 이후 후기 작품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은 공포와 SF의 결합이 본격화되고 정점에 오른 소설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불쑥 우주에서 찾아든 색채는 순박한 농부 나훔과 그 가족을 파멸시킨다. 색채는 나훔의 파멸에 대해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며, 동정하지도 않는다. 러브크래프트는 냉정하고 거대한 우주와 상대적으로 나약한 인간 사이에 색채라는 실체 없는 분위기를 주입함으로써 긴장감을 이끌어간다. 러브크래프트의 말대로 ‘분위기’로 승부하고, 성공을 거둔 작품이다.

「우주에서 온 색채」는 프랑켄슈타인 역의 원조로 꼽히는 보리스 칼로프(Boris Karloff)가 나훔으로 분한 「악령의 미스테리 Die, Monster, Die!」(1965)와 「커스 The Curse」(1981)로 각각 영화화됐다.

아침¹⁸⁾ 서부, 여기저기 솟아 있는 험준한 산과 울창한 골짜기에는 천연 그대로의 야성이 숨쉬고 있다. 비좁은 계곡마다 나무들이 기괴한 형상으로 얹혀 있고, 묵묵히 흐르는 실개천엔 햇빛도 닿지 않는다. 완만한 비탈에 웅크리고 있는 농가들은 이끼에 뒤덮인 채, 거대한 암벽 그늘 속에 숨겨진 뉴잉글랜드의 비밀을 회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농가는 모두 비어 있으며 큼지막한 굴뚝도 무너진 지 오래, 낮은 박공지붕 양쪽으로 처마가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다.

사람들도 하나둘 마을을 떠났고, 외지인들도 그곳을 기피하고 있다. 프랑스계 캐나다인, 이탈리아인, 폴란드 인들이 차례차례 새로운 보금 자리를 찾아 몰려왔다가 이내 그곳을 등지고 말았다. 사람의 눈과 귀를 괴롭히는 처치 곤란한 일들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 무엇이 문제였다. 그곳은 인간의 상상력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쳤으며, 사람들은 밤에도 편안한 꿈에서 안식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외지인들도 서둘러 짐을 꾸려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미 피어스 노인이 그 ‘기이한 날’에 대해 귀뜸이라도 해 주었다면 상황이 어느 정도 달라

졌을지 모른다. 요 몇 년 사이 반미치광이가 되었다는 아미 노인은 그곳에 남아 있는 유일한 토박이었으며, 그 기이한 날에 대해 정확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만약 그날을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다면, 탁 트인 들녘과 아컴 도로 주변에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예전에는 언덕 너머로 길이 나 있어서 골짜기를 지나 지금은 '마의 황무지'로 불리는 지역까지 곧장 이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길을 이용하지 않았고, 남쪽으로 멀리 우회하는 도로가 새로 만들어졌다. 숲속의 잡초 사이를 더듬어보면 버려진 길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골짜기의 반 이상이 저수지로 바뀐다 해도 그 흔적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지 않았다. 그때쯤이면 울창한 숲은 모두 베어지고, '마의 황무지'도 저수지 속에 고요히 누워 수면에 반짝이는 잔물결과 파란 하늘을 올려다 볼 데지만 말이다. 그렇게 기이한 날의 비밀은 가장 아득한 전설의 뒤안길로 사라질지 모른다. 유구한 바다에 숨겨진 자장과 태초의 땅에 파묻힌 신비처럼.

내가 저수지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아컴 서부의 산과 골짜기를 찾을 때, 사람들은 그곳이 악마의 땅이라고 수군거렸다. 나는 아컴에서 그런 소문을 접하면서 수백 년 동안 할머니가 손자에게 들려주던 귀신 얘기를 떠올렸다. 그러나 '마의 황무지'라는 이름은 매우 기이하고 극적으로 느껴졌으며, 과연 그런 얘기들이 청교도의 민담에 어떻게 섞일 수 있었을까 의아심이 들었다. 그런데 막상 짙은 어둠에 빠져 있는 서부 골짜기와 비탈을 직접 대하는 순간, 전설이 허황된 것이라는 생각은 마음에서 짝 가시고 말았다. 그 광경을 마주한 것은 아침나절이었는데, 어디에나 음침한 그림자가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뻣뻣하게 자라 있는 나무들은 그 두께와 모양에서 건실한 뉴잉글랜드의 숲과는 전혀 어울

리지 않았다. 어슴푸레한 샛길마다 괴괴한 침묵이 스며 있고, 술한 세월이 덧씩워진 듯 이끼 무성한 바닥은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웠다.

버려진 길을 따라 이따금씩 나타나는 툇 트인 공간에도 농가의 자취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따금 한두 채의 건물이 스치거나 부서진 굴뚝이며 텅 빈 헛간이 고즈넉한 풍경을 자아냈고, 우거진 잡초와 가시나무 덩불 사이에서 야생 짐승들이 은밀하게 부스럭거렸다. 어디에나 불안과 우울의 그림자가 파리를 틀고 있었다. 원근법과 명암이 묘하게 뒤트린 그림처럼 비현실적이고 기괴한 분위기, 이런 곳에서 과연 잠드는 것이 가능할까? 외지인들이 정착하지 못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곳의 풍경은 살바토르 로사¹⁹⁾의 풍경화와 흡사했으며, 괴담을 표현한 금기의 목판화에서나 접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괴이한 분위기도 마의 황무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골짜기에서 그곳을 맞닥뜨리는 순간, 바로 여기구나 직감이 들 정도였는데, 이름과 대상이 그토록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기도 힘들 것이었다. 어느 시인이 그곳을 보는 순간 마의 황무지라는 말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눈에도 불에 탄 흔적이 역력했다. 산성 물질에 녹아버린 듯한 6천 평 남짓의 잿빛 대지 위로 태양이 비추고 있었지만,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는 것이 기이하기만 했다. 대부분의 지역이 버려진 북쪽 도로에 면해 있었고 남쪽으로는 약간 걸치기만 한 상태였다. 발을 들여놓기가 꺼림칙했지만, 말은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넓게 펼쳐진 공간에는 잡초조차 눈에 띄지 않았으며,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미세한 잿빛 먼지와 재 같은 것이 흩날렸다. 메마른 나무들은 발육이 비정상적으로 정지됐는지, 대부분 죽어 있거나 가장자리부터 썩어 있었다.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하는 순

간 오른쪽에서 낚은 굴뚝과 헛간에서 떨어져 나뒹구는 벽돌과 함께 버려진 우물이 시커먼 입을 드러냈는데, 그 위로 햇빛과 어울려 기묘한 증기가 아른거리는 느낌이었다. 굳이 그 뒤편으로 길게 이어진 음침한 숲을 통해 갈 필요는 없었지만, 나는 아침 사람들이 쉬쉬하며 속삭이던 말들에 개의치 않을 마음이었다. 농가에선 딱히 폐허의 흔적이라 할 만한 것이 눈에 띄지 않았으며, 그저 예전부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고립된 지역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날 저녁, 나는 불일을 마친 후 다시 그 불길한 길목을 택하는 대신 남쪽으로 난 우회 도로를 따라 마을로 돌아왔다. 길 위에서 바라본 하늘은 너무도 공허하여 줄곧 마음 한편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고, 그 때문인지 구름이라도 잔뜩 낀 흐린 날씨였으면 하는 바람이 절로 들었다.

마을로 돌아온 후, 나는 아침의 나이든 사람들에게 마의 황무지와 여기지기서 수군대는 ‘기이한 날’이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 기괴한 사건이 생각보다 최근에 일어났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오랜 전설이 아니라 수십 년 전, 그러니까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 생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1880년대에 벌어진 일이며 그 결과 한 가족이 실종되거나 죽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웠고, 한결 같이 아미 피어스라는 미치광이 노인의 말은 귀담아 듣지 말라고 당부하기에, 나는 다음 날 아침 그 노인을 찾아 나섰다. 아미 피어스는 나무들이 갑자기 뻥뻥해지는 지점, 다 쓰러져 가는 농가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어느 순간부터 을씨년스러운 광경이 펼쳐지는가 싶더니, 공기 중에 스며든 독한 냄새가 무너져가는 아미의 농가에도 짙게 배어 있었다. 연거푸 문을 두들기자 노인이 겨우 인기척을 내며 문간에 나타났는데, 나를 꺼리는 기색

이 역력했다. 노인은 생각보다 건강해 보였다. 다만 눈동자가 기이하게 풀려져 있었고, 누추한 옷차림과 무성한 백발 때문에 많이 늙고 음산해 보였다. 나는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할지 몰라 짐짓 저수지 문제 때문에 찾아온 척하며 인근 지역에 대해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아미 노인은 소문과는 판판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사리분별이 정확했으며, 그때까지 내가 아침에서 만난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 훨씬 밝은 인물이었다. 앞으로 저수지 예정 지역에 살고 있는 시골 사람들과도 여러 면에서 달랐다. 저수지에서 제외되는 숲과 농지의 반경을 알려 주며 그의 농가가 수몰될 것이라는 말을 했지만 그는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평생 삶의 터전이었을 골짜기가 물속에 영원히 잠긴다는 말에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물속에 잠기는 편이 낫다고, 아니 그 기이한 날 이후 진작부터 그랬어야 했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는 그렇게 착 가라앉은 선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는데, 몸을 앞쪽으로 수그린 채 오른손 검지를 부들거리며 감회에 어린 듯 창밖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은 그때였으며, 두서없는 목소리가 과거의 시간을 더듬거리며 속삭일 때 나는 한여름 날씨에도 연신 달려드는 냉기에 몸을 떨어야 했다. 나는 그가 힘겹게 풀어내는 기억의 실타래에서 막히는 부분을 이따금씩 거들어주며 기억의 단편을 이어주기도 했다. 특히 그는 과학적 지식과 관련된 부분을 더듬거리며 힘겨워 했는데, 그런 내용은 대부분 교수들의 대화나 골짜기 너머에서 주위들은 것 같았고, 그의 기억력에서 논리성과 일관성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나는 그의 정신에 약간 문제가 있거나, 아침 주민들이 마의 황무지에 대해 뭔가 숨기거나 둘 중 하나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행한 창공에 드러날 별빛이 두려워 해가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호텔

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 날 곧바로 보스턴으로 돌아가 저수지 관련 일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그 숲과 골짜기의 정체 모를 혼돈 속으로 다시 들어갈 자신이 없었으며, 나뭇구는 벽돌과 돌멩이 사이에서 음침한 우물이 깊은 동굴처럼 열려져 있는 잿빛의 그 땅을 두 번 다시 마주할 자신도 없었기 때문이다. 곧 저수지 공사가 시작되면, 오랜 비밀도 물속에 영원히 잠길 터였다. 그러나 그런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해도, 나는 한밤에 그 마을을 다시 찾을 마음이 없다. 적어도 그 불길한 별빛 아래를 걸을 엄두가 나지 않았으며, 어떤 달콤한 유혹이 있더라도 아침의 새로운 저수지물을 식수로 들이킬 생각도 없다.

아미 노인의 이야기는 유성과 함께 시작된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침은 마녀 재판 같이 으스스한 전설이나 내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인디언의 역사보다 더 오래된 기이한 돌 제단 옆에서 악마가 집회를 연다는 미스캐토닉²⁰⁾의 섬보다 당연히 훨씬 안전한 마을이었다. 숲에 유령이 출몰하지도 않았고, 기이한 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곳의 몽환적인 황혼이 그토록 끔찍하지도 않았다. 것처럼 평온했던 마을에 난데없이 일련의 폭발음과 함께 흰색 구름이 피어났고, 숲속 멀리 골짜기에서 연기 기둥이 솟구친 것이다. 그날 밤 아침 주민들은 하늘에서 거대한 운석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 지점이 바로 나훔 가드너의 집 우물가라는 것을 알았다. 나훔 가드너의 농가는 얼마 후 마의 황무지로 불리게 될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비옥한 밭과 과수원 사이 한복판에 있는 말끔한 흰색 집이었다.

나훔은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에게 운석이 떨어졌다고 말한 후, 돌아오는 길에 아미 피어스의 집에 들렀다. 당시 아미는 마흔 살이었는데, 나훔의 말을 듣고는 온갖 기괴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한다. 다

음 날, 미스캐토닉 대학에서 교수 세 명이 미지의 우주 공간에서 날아온 기묘한 방문객을 보기 위해 다급히 아미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아미와 그의 아내도 그들과 함께 나훔의 집을 찾았다. 교수 일행은 그 전날 만해도 운석이 아주 거대했다는 나훔의 설명에 몹시 의아해 했다. 남아있는 운석의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이다. 나훔은 앞마당 우물 가까이 그을린 풀밭과 파헤쳐진 땅 앞에 생긴 큼지막한 갈색 둔덕을 가리키며 암석이 하룻밤 새 줄어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은 암석이 줄어들 수는 없다고 대꾸했다. 나훔은 주변에서 뜨거운 열기가 이어졌고, 밤새 희미한 빛이 떠돌았다고 항의하듯 말했을 뿐이다. 한편 교수들은 지질학 연구용 해머로 암석을 두들겨 보았는데,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워 플라스틱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들은 학교에 가져가 실험할 목적으로 암석 표본을 채취했다. 그런데 표본용으로 채취한 작은 암석 덩어리가 몹시 뜨거워서 할 수없이 나훔의 부엌에 있는 낡은 들통에 담아야 했다. 돌아가는 길에 교수들은 아미에 집에 들러 잠깐 휴식을 취했는데, 암석 표본이 점점 작아지고 들통 바닥이 타들어 가기 시작하자 저마다 깊은 생각에 골몰하는 눈치였다. 원래 표본이 큰 편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보기에든 크기가 줄어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교수들이 매우 상기된 표정으로 다시 들이닥친 것은 바로 다음 날, 82년 여름의 어느 날이었다. 그들은 아미의 집을 지나면서 암석 표본이 일으킨 이상한 현상에 대해 들려주었다. 실험용 비커에서 암석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침단 장비가 갖춰진 연구실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현상으로 보였다. 비커 역시 암석과 함께 사라졌는데, 교수들은 그 암석이 실리콘의 일종인 것 같다고만 말했다. 충분히 가열한 상태에서도 다른 성분이 추출되지 않았고, 붓사 시약에도 아무 반응

이 없었으며, 수소 취관 분석을 비롯해 온도 변화에도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신축적이어서 쉽게 변형이 가능했고, 어두운 곳에서 특히 또렷하게 감지되는 발광 현상도 특징이었다. 게다가 좀처럼 식지 않는 높은 온도 때문에 암석은 대학 관계자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으며, 특히 분광 분석에서 일반적인 스펙트럼과는 전혀 다른 색이 검출되자, 교수들은 새로운 원소이자 기막힌 광물의 발견이라며 더욱 들뜬 분위기였다. 그러나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수수께끼들은 여전히 미궁에 남아 있었다.

과학자들은 뜨거운 상태 그대로 암석을 도가니 속에 넣은 후, 가능한 시약을 총동원하면서 반응을 살폈다. 물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염산도 마찬가지였다. 질산과 왕수도 고작 석 하는 소리와 함께 튀어 오를 뿐, 암석은 난공불락 그대로였다. 아미는 화학 관련 부분을 묘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가 중간 중간 거들듯 일러주는 촉매제를 알아두고 기억의 방향을 잡아나갔다. 암모니아와 가성 소다, 알코올과 에테르, 이황화탄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게가 조금씩 줄어들고, 온도가 약간 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촉매에도 암석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렇지만 금속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였다. 그 추측에 힘을 실어준 것은 암석에서 발견되는 자력이었다. 또한 산성 촉매제에 힘을 넣어놓자, 희미하게나마 운석에서 발견되는 비드만스테텐 구조²¹⁾가 나타났다. 암석의 온도가 눈에 띄게 떨어졌을 때 그걸 유리컵에 옮겨 실험을 계속했고, 나중에 비커에 담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암석 표본 조각과 비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비커가 놓여 있던 목재 선반에 검게 그을린 자국만 남아 있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아미의 집 앞에서 교수들이 알려준 전부였다. 아

미는 교수 일행과 함께 별세계에서 날아든 낯선 바위 사자(使者)를 보기 위해 다시 한 번 나훔의 집으로 향했다. 이번엔 아내를 데려가지 않았다. 냉철한 과학자들도 또 다시 암석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크기가 작아진 암석 주변의 갈색 토양이 움푹 패인 상태였다. 아무튼 전날 만해도 2미터가 족히 넘었던 암석의 크기가 1.5미터 남짓으로 줄어 있었다. 온도는 여전히 뜨거웠으며, 과학자들은 암석 표면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해머와 끌을 이용해 좀 더 커다란 표본을 채취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좀 더 깊숙이 파냈는데, 일행은 그렇게 채취한 암석 덩어리를 잘게 쪼개 보다가 마침내 전날과는 전혀 다른 성분을 발견했다.

그들은 암석 본체에 박혀있는 큼지막한 구체 모양의 물질과 그 측면에 나타나 있는 색깔에 주목했다. 전날 운석 표본의 기이한 스펙트럼에서 발견됐던 색깔과 흡사했지만, 정확히 어떤 색깔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그저 유추에 의해 그것을 색깔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였다. 표면에 광택이 있었으며, 가볍게 두드려본 결과 부서지기 쉬운 성분이고 내부가 비어 있을 확률이 컸다. 그런데 교수 중 한 명이 해머에 약간 힘을 주는 순간, 구체는 평하는 작은 폭발음과 함께 부서지고 말았다. 따로 방출된 성분은 없었지만 구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남은 것이라고는 직경 7센티미터 정도의 둥그런 공간뿐이었다. 그 때문에 과학자들은 암석을 분해하다 보면 다른 물질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추측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추측은 빗나갔다. 착암기를 동원해 다른 물질을 찾아보려고 애썼지만, 새로운 표본을 얻는데 그쳤다. 물론 그 표본 역시 전날 실험실에서 접했던 수수께끼를 다시 던져 주었다. 플라스틱과 거의

유사한 조직, 높은 열과 자력, 희미한 빛을 내며 강한 산성에서 약간씩 온도가 떨어지고, 정체불명의 스펙트럼이 나타나며, 공기 중에서 줄어들고, 실리콘 화합물과 만나면 둘 모두 파괴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것의 정체를 도저히 규명할 수 없다는 결론만 나왔다. 갖가지 실험을 통해 과학자들이 도달한 결론은 결국 미궁이었다. 지구가 아닌 거대한 외계의 일부분, 외계의 속성을 간직하고 외계의 법에 순종하는.

그날 밤 강풍과 함께 뇌우가 몰아쳤고, 다음 날 나훔의 집을 찾아간 교수들은 몹시도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암석이 자성을 띠고 있다는 건 이미 밝혀진 바지만, 이번에는 전기적 속성까지 있는 것으로 보였다. 나훔은 암석이 ‘번개를 잡아당겼다’는 말을 줄기차게 해댔다. 한 시간에 여섯 번씩 앞마당 텃밭으로 번개가 내려쳤으며, 폭풍이 지나간 후에 살펴보니, 낡은 우물가 곳곳이 초토화 되다시피 움푹 패어 있을 뿐 암석은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땅을 파내기 시작했지만, 감쪽같이 사라진 암석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들은 결국 대학 실험실로 돌아가 전날 채집한 후남 상자 안에 조심스럽게 보관해 두었던 암석 표본을 다시 찾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그 암석 표본은 과학자들의 무익한 실험을 일주일간 견뎌낸 뒤 예상대로 티끌 하나 남기지 않은 채 사라져 버렸다. 과학자들은 부릅뜬 눈앞으로 스쳐간 외부 세계의 깊디깊은 심연의 자취가 도저히 믿기지 않을 뿐이었다. 다른 세계, 물질과 힘과 영원의 또 다른 왕국에서 날아온 그 기이하고도 쓸쓸한 메시지.

대학 당국의 후원 하에 아컴 지역 신문들이 일제히 그 사건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상당수의 기자들이 나훔 가드너와 그 가족에게 물려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지역 신문 뿐 아니라 보스턴에서도 통신원을

파견한 일간지가 있었으며, 나훔은 어느새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다. 나이는 쉰 살가량, 깡마른 체구에 순박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아내와 세 아들을 둔 단란한 가정의 가장 나훔. 그와 아미는 절친한 사이였으며, 안사람끼리도 왕래가 잦았다. 아미는 그 사건 이후 한동안 나훔을 치켜세우느라 바빴다. 나훔 덕분에 자기까지 세인의 주목을 받는다는 사실에 자부심까지 느꼈으며, 몇 주 동안 누구와 마주치기만 해도 그 운석 얘기를 꺼내곤 했다. 그 해 7월과 8월은 몹시 무더웠다. 나훔은 채프먼 개천을 가로지르는 만여 평의 목초지에서 부지런히 건초를 말렸으며, 으스스한 오솔길은 그가 끌고 다니는 짐수레의 바퀴 자국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농사일이 힘에 부쳤는데, 나훔 자신은 나이 탓으로 여겼다.

곧이어 결실과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다. 배와 사과가 천천히 익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훔은 생애 최고의 풍년을 예감했다. 과일의 크기가 놀랄 만큼 컸으며, 빛깔도 예사롭지 않았다. 예년과는 달리 수확량도 엄청나리란 예상에 과일 담을 들통을 더 주문할 정도였다. 그러나 과일이 무르익자 곧 쓰디쓴 절망이 찾아왔다. 그 짙고 독특한 향기는 도저히 식용 과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는데, 달콤한 향기와는 판판으로 사과와 배의 맛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쓰고 역겨웠다. 아주 약간만 베어 먹어도 구역질이 한동안 끊이지 않았다. 멜론과 토마토도 마찬가지였으며, 나훔은 모든 농작물이 헛것이 되는 광경을 피 끓는 심정으로 지켜보아야 했다. 별의별 생각 끝에 그는 운석 때문에 토양이 중독됐으며, 도로변 고지대는 하늘의 은총 덕분에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 해 겨울은 일찍 찾아 왔고 몹시 추웠다. 아미는 평소보다 나훔의

얼굴을 자주 보지 못했으며, 이따금 보더라도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나훔뿐 아니라 나머지 가족들도 점점 말수가 적어졌고, 좀처럼 빠지지 않던 예배를 비롯해 각종 마을 모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도 나훔 일가의 침묵과 침울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며, 나훔 자신도 몸이 좋지 않고 마음이 편치 않다는 말만 몇 차례 되뇌었을 뿐이다. 그런 나훔도 눈 속에 난 발자국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다는 말을 할 때만큼은 또렷하고 강한 어조였다. 붉은 날다람쥐와 토끼, 여우 발자국은 어느 겨울에도 으레 발견되는 것이지만, 나훔은 시름에 잠겨 그 발자국의 특성과 모양이 어딘가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붉은 날다람쥐와 토끼, 여우의 발자국과는 전혀 달랐던 듯했다. 아미는 어느 날 밤 클라크 상가에 들렀다가 썰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우연히 나훔의 농가를 지나쳤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나훔의 말에 그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달빛 아래 토끼 한 마리가 길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걸 보고 달갑지 않게 생각한 순간,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미친 듯이 달려갈 태세를 취하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아미는 나훔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나훔이 기르는 개들이 아침이면 전에 없이 짹짹대며 안절부절못한다는 말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이듬해 2월, 메도우 언덕에 사는 맥그리거 집안 아이들이 마뫼²²⁾을 사냥하다 나훔 농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아주 특이한 종류를 발견한 일이 있었다. 겉모양으로 보아 아주 묘한 방법으로 변형된 것 같았는데, 그 얼굴에 남아 있는 표정이 그때까지의 마뫼들과는 전혀 다른 기이한 것이었다. 아이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 마뫼를 내버렸고, 그 얘기는 곧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한편, 나훔의 농가 주변에만 오면 말

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쉬쉬하던 소문들이 시시각각으로 일정한 형태를 취하기 시작했다.

다른 곳에 비해 나훔의 집 주변에 쌓인 눈이 유독 빠르게 녹는다는 말이 들려왔고, 3월초에 이르러 클라크 상가 내 포터 잡화점에서 일련의 괴이한 일들이 벌어져 주민들 사이에 공론이 오가기도 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 스티븐 라이스는 그날 아침 나훔 농가를 지나오다 도로 건너 숲가 진흙 구덩이에 앓은부채²³⁾가 피어 있는 것을 목격했다. 생김새도 이상하거니와 크기도 엄청났고 색깔이 기이해서 무슨 색이라고 딱히 말할 수 없었다. 스티븐의 말(馬)은 앓은부채의 냄새를 맡았는지 연신 코를 별름거렸는데, 스티븐 역시 그런 냄새는 난생 처음이었다. 그날 오후 몇몇 사람들은 그 기이한 식물을 관찰한 후 건전한 토양에서는 도저히 자라기 힘든 식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람들은 지난 가을 나훔의 과수원에서 나온 과일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입에 올렸고, 그 이후 나훔의 농작지가 모두 중독됐다는 소문이 파다해졌다. 물론 운석을 둘러싼 소문도 끊이지 않았다. 당시 대학 교수들과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은 정체불명의 암석에 대해 전해들은 말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나훔의 집을 방문했다. 항간에 난무하는 소문들과 함께 직접 자신들의 추측이 맞는지 냉정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식물의 모양새가 분명 기이한 구석이 있었지만, 앓은부채는 그 형태와 색깔, 냄새에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다지 이상한 부분은 없었다. 운석에 포함된 광물 성분이 토양에 스며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토양의 정화 작용에 의해 곧 씻겨 사라질 터였다. 이상한 발자국이 발견된 일도, 말들이 겁에 질리곤 했던 일들도 운석 때문에 과장

된 사소한 사건일 수 있었다. 그래서 당시 소문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없었으며, 수다를 좋아하고 무엇이건 믿는 미신적인 시골 사람들의 일상 정도로 여겨졌다. 게다가 이후엔 대학 교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운석 사건 후 1년 반이 지났을 무렵, 두 병 분량의 분진을 분석해 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응한 사람은 교수들 중 단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앓은부채의 기묘한 색깔이 실험실 분광기에 나타났던 암석 표본과 암석 본체에서 채취한 작은 구체의 색깔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분진을 분석한 결과 처음에는 암석 표본과 같은 속성을 보였지만, 나중에는 그런 성질이 사라졌다.

한편 나훔의 농가 인근에서는 끊임없이 식물이 싹을 틔우고, 밤마다 바람에 실려 사방으로 흩날리고 있었다. 나훔의 둘째 아들 새디어스는 열다섯 살이었는데,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식물의 종자가 공기 중으로 떠다니는다고 말했다. 이쯤 되자 남의 말 옮기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새디어스의 말은 쉽게 믿으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공기 중에 불안한 그림자가 떠돌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였다. 나훔 가족은 너나할 것 없이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쫓긋 세우는 버릇이 생겼지만, 그 소리의 정체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 무슨 소리가 들려 왔다고보다는 낯 나간 사람들이 접하는 환청에 가까운 듯 보였다. 불행히도 환청과 비슷한 음향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분명하게 나훔 일가를 괴롭혔고, '나훔네 가족이 전부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소문이 별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나훔의 농가에 범의귀풀이 얼굴을 내밀었는데, 그것의 색깔 역시 기이해서 무슨 색인지 정의할 수 없다는 점이 앓은부채와 마찬가지로였다. 나훔은 범의귀 몇 송이를 꺾어 아침으로 가져가 《가제트》지의 편집장에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신문은 그것

을 익살스런 장난으로 치부했으며, 시골 마을에 떠도는 맹목적인 공포감을 점잖게 조롱하는 소재로 썼을 뿐이었다. 이상한 나비들이 범의귀 주변에 날아든다는 얘기를 편집장처럼 냉담한 도시인에게 한 것이 나훔의 실수였다.

4월에 접어들면서 시골 마을에 붙어닥친 소문은 또 하나의 광풍이 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나훔의 농가로 난 도로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나무가 문제였다. 과수원의 나무가 죄다 괴상한 색깔을 띠기 시작했으며, 울퉁불퉁한 자갈밭과 인근 방목지에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나무들의 괴상한 형태는 식물학자만이 겨우 그 정체를 추측할 수 있을 정도였다. 녹색을 유지하는 풀이나 잎사귀 류를 제외하곤 어디에서도 정상적인 색깔이 보이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토양이 아니라 병적인 근원에서 광기로 변형된 생명력이 일대를 지배했다. 금강화는 불길한 위협을 자아냈으며, 혈근초는 온갖 과잉된 색채와 무시무시한 번식력을 뽐내고 있었다. 아미와 나훔 가족에겐 그 색깔 대부분이 꺼림칙한 기억을 되살려 내는 것만 같아서, 그들은 운석에 박혀 있던 작은 구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나훔은 1만2천여 평 정도의 목초지와 고지대를 주로 경작했지만, 집 주변의 땅은 대부분 그대로 놔둔 상태였다. 사실 집 주변은 불모지로 둔갑해 버렸으며,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그 괴상망측한 식물의 번식력이 토양의 독성까지 흡수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나훔은 이제 모든 의욕을 잃고 그저 주변에서 들려온다는 음향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물론 이웃들의 외면도 그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그러나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의 상처가 더 깊었다. 아이들은 별 탈 없이 학교에 다녔긴 해도 떠도는 소문들을 감당하기에는 어린 나이였다. 특히 예민했던 새디어스가 꺾어야했던 고통은 남다른 것이었다.

5월에는 곤충이 날아들었다. 나훔의 농가는 우글대는 곤충 때문에 끝없는 악몽에 빠져들었다. 대부분의 곤충들은 생김새와 행동이 유별났으며, 특히 야행성이라는 점이 이전에 그곳을 찾았던 곤충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었다. 가드너 가족은 밤마다 사방에서 일어나는 불길한 움직임들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다. 그 정체를 깨달은 것은 새디어스가 최초였다. 새디어스 다음으로 가드너 부인이 창가에서 단풍나무를 바라보다 그것을 목격했다. 나뭇가지들이 움직였지만, 바람은 없었다. 수액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밝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훔의 가족 중에서 그 같은 광경을 목격한 사람은 새디어스와 가드너 부인뿐이었다. 나훔 가족은 이제 이상한 일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였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무감각해져 갔다. 그런 그들도 보지 못한 광경을 우연히 목격한 사람이 나타났다. 소형 풍차를 판매하는 볼튼 출신의 소심한 외판원이 나훔의 농가를 지나갔던 것이다. 그는 마을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다. 그의 목격담은 《가제트》지에 찰막한 기사로 실렸으며, 나훔을 비롯한 인근 농부들 모두가 그 기사를 읽었다.

그날 밤은 칠혹같이 어두웠으며, 2륜 마차에 달려있는 낡은 등불도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골짜기에 틀어박힌 한 농가 주변은 유독 어둡지 않았다. 물론 이방인만 몰랐을 뿐, 누구나 그곳이 나훔 가드너의 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 나무와 수풀과 잎사귀, 이름 모를 꽃봉오리를 휘감고 있었으며, 어느 순간 푸른빛 인광이 농가의 헛간에서 강렬하게 일렁였던 것이었다. 그때까지도 잔디밭은 손길 한 번 닿지 않아 무성했고, 젖소들은 마음대로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5월말에 접어들면서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훔이 고지대로 젖소를 옮긴 후에야 문제가 해결됐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잔디와 풀밭, 나뭇잎이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다. 푸른 색 기운이 모조리 잿빛으로 변해갔으며, 모두 손만 갖다대도 부서질 것처럼 보였다.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자 나훔 일가는 세상을 완전히 등지게 되었고, 이따금 아미가 시내에 들러 심부름을 해주는 정도였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들 가족은 몰락해 갔으며, 가드너 부인이 미쳐 주위를 배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마을 사람들 누구도 놀라지 않았다.

운석이 떨어진지 꼭 1년이 되는 6월, 가엾은 가드너 부인은 알 수 없는 뭔가가 허공에 있다며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내지르는 광란의 울부짖음에는 특별한 대상을 지칭하는 명사가 없었으며, 그저 동사와 대명사가 거칠게 섞인 것이었다. 뭔가 움직이고 변화하며 퍼덕거리는 무엇, 그녀의 귀는 집요하게 불완전한 음향을 쫓아갔다. 그녀는 다른 힘에 의해 압도당하고 있었다. 몸에서 뭔가 빠져나가고, 그녀에게 비친 한밤의 광경은 벽이며 창문이며 모든 게 무엇이든 움직이고 있었다. 나훔은 아내를 정신병원으로 보내지 않았으며, 그녀가 자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한 집 주변을 방황해도 제지하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머니를 점점 무서워했으며, 특히 새디어스가 어머니의 시선에 기겁을 할 정도 놀라는 상황이 되자 결국 나훔은 아내를 다락방에 가두어 놓기로 결심했다. 7월경 가드너 부인은 말을 잃고 기어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달이 채 끝나기 전에 나훔은 아내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나온다는 미친 소리를 전해 왔다. 얼마 후 그는 집 주변의 야채와 식물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을 목격했다.

그보다 약간 앞서 나훔의 마구간에서도 소동이 일어났다. 말들이 사납게 울고 마구 발길질을 하면서 공포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말들을 아무리 달래보아도 소용이 없었다. 마구간 문을 여는 순간 겁에 질린 사슴 떼처럼 말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꼬박 사흘 동안 해맨 끝에 네 마리의 말을 찾아냈지만,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이 상하고 몹시 거칠어진 상태였다. 뇌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았으므로 나훔은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네 마리 말을 향해 하나씩 총구를 겨누었다. 이제 나훔은 퇴비를 만들기 위해 아미에게 말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미의 말은 나훔의 마구간 가까이 다가서는 것조차 질색을 했다. 결국 말을 마당에 남겨두고, 나훔과 아미가 퇴비를 놓기 좋은 곳까지 무거운 마차를 끌고 가야 했다. 한편 채소는 모두 잿빛으로 변해 만지면 곧 부서질 듯 푸석푸석해져갔다. 꽃도 잿빛으로 변하기는 마찬가지였고, 과일 역시 색 바랜 채 작게 오므라들어 맛까지 형편없었다. 과꽃과 기린초도 역시 잿빛으로 비비꼬인 형태였으며, 나훔의 장남 제나스가 앞마당에서 꺾어 온 장미와 백일홍, 접시꽃은 모습이 섬뜩하기 짝이 없었다. 그때쯤 무수히 날아다니던 곤충들이 모두 죽었으며, 꿀벌마저 벌집을 놔두고 숲속으로 날아가 버렸다.

9월에 접어들면서 채소들이 잿빛으로 부서져 버리자, 나훔은 토양에서 독성이 사라지기 전에 나무가 모두 죽어버릴지 모른다면 불안해했다. 가드너 부인은 이제 주기적으로 끔찍한 비명을 질렀고, 나머지 가족은 늘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생활해야 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무조건 피하기 시작했으며, 방학이 끝난 후에도 아이들은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아미는 그때까지도 나훔의 농가를 찾는 극소수 사람 중 한 명이었으며, 우물이 못 쓰게 된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한 이도 그였

다. 우물에서 악취가 진동했으나 무슨 냄새인지 정체가 묘연했고, 쨌기운이 느껴지는 듯하면서도 그 맛을 딱히 설명할 길이 없었다. 아무튼 도저히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것만은 분명했기에 아미는 좀 더 위쪽에 우물을 새로 파고, 토양이 예전으로 돌아갈 때까지 만이라도 지금의 우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훔은 당시 어지간한 일에는 무감각해져 있던 터라 아미의 그런 충고를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와 아이들은 그 후로도 여전히 옛 우물의 물을 길어와 마셨고, 아무렇게나 만든 형편없는 음식을 기계적으로 입 속에 집어넣으며 아무런 결실이나 보상도 없이 단조로운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분명하고도 익숙한 운명을 향해 한발 한발 다가서듯 이미 전혀 다른 세계의 한복판으로 빠져든 상태였다.

새디어스가 미쳐 버린 것은 9월 어느 날 우물에 갔다 온 직후였다. 그는 물통을 가져갔으나 빈손으로 돌아와 사지를 부들부들 떨며 공허한 너털웃음을 터뜨리는가 하면, ‘저 아래서 색깔들이 움직이고 있어요!’라는 말을 불쑥 내뱉는 것이었다. 가족 중에서 두 사람이 이미 미쳐 버렸지만, 나훔은 이상할 정도로 낙관적이었다. 그래서 미쳐 버린 새디어스가 한 주 동안 바깥을 쏘다녀도 말리지 않았으며, 결국 아이가 비틀비틀 곤두박질치다 몸까지 다치게 되어서야 어머니가 간헐적인 다락방에 아이를 가두어 버렸다. 이제 어머니와 아들이 저마다 간헐적인 방에서 미친 듯이 울부짖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특히 막내둥이 메르윈에게는 그들의 비명 소리가 더욱 끔찍했을 것이다. 메르윈은 점점 더 무시무시한 상상에 사로잡혔으며 단짝 친구나 마찬가지로였던 둘째형이 갇힌 이후 불안증이 심해졌다.

나훔 일가에 드리워진 불길한 운명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가족들에게

도 마수를 뺌치기 시작했다. 닭과 칠면조, 오리 등이 잿빛으로 변하다 곧바로 죽어 버렸는데, 배를 갈라보니 죄다 말라빠진 상태에 지독한 악취를 풍겼다. 반대로 돼지들은 살이 터질 듯 비만해졌는데, 역시 눈뜨고 볼 수 없는 변화를 겪고 있었다.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것이 당연했지만, 나훔이 손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마을 수의사들은 나훔의 집을 찾아가려 하지 않았고, 가까스로 불러온 아킴 시내의 수의사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돼지는 잿빛으로 변하는가 싶더니 이내 몸통이 조각조각 떨어지면서 죽어갔다. 특히 눈과 주둥이 부분에 독특한 변화가 나타났다. 돼지에게 마당에서 나는 채소 비슷한 어떤 것도 먹인 일이 없었으므로 그런 변화를 설명할 방법도 없었다. 다음 차례는 젖소였다. 젖소의 몸뚱이 일부 혹은 전체가 오그라들면서 죽었고, 역시 몸통이 덩어리씩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제 가축이 나자빠지는 게 놀랄 일이 아니게 되었지만, 잿빛으로 변해 푸석푸석해진 마지막 단계에서 몸통이 분해되는 현상만은 예사로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축사가 철저히 격리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독극물에 의한 중독 현상으로 보기 어려웠으며, 가축들이 다른 동물을 물거나 하지도 않았으니 바이러스 감염일 확률도 극히 적었다. 무엇보다 철저히 막아놓은 축사의 벽을 뚫고 들어갈 만한 생물체가 없으리라는 것이 더욱 그러했다. 그렇다면 자연적인 병사라는 결론만 남게 되지만, 것처럼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악랄한 병증을 일으킬만한 질병이 존재하는지 의문이었다.

추수의 계절이건만 가축은 폐죽음을 당하고 개들은 모두 어디론가 도망쳐버린 나훔의 농가에는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다. 개 세 마리가 어느 날 밤 한꺼번에 사라지기도 했고, 고양이 다섯 마리도 언제

인지 모르게 농가를 떠났다. 주변에 잡아먹을 쥐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던 데다 정성껏 돌봐 주던 가드너 부인마저 정신 착란으로 다락방에 갇히는 신세가 됐으니 남아 있었다면 그 역시 이상한 일이었다.

10월 19일, 나훔은 비틀거리며 아미의 집을 찾아가 끔찍한 소식을 전했다. 새디어스가 다락방에 갇힌 채 죽고 만 것이었다. 나훔은 농장 뒤 울타리를 쳐 놓았던 자투리땅에 무덤을 파고, 새디어스(그 시신을 사람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면)를 묻었다. 새디어스가 갇혀 있던 다락방은 항상 문을 잠그고 작은 창문마저 막아 놓았으므로 어떤 것도 외부에서 침입할 수 없었다. 새디어스의 마지막 모습은 축사에서 벌어진 광경 그대로였다.

아미와 그의 아내는 절망에 몸부리치는 나훔을 정성껏 위로했지만, 그들도 끔찍한 파멸의 그림자에 몸을 떨어야 했다. 묵직하고 견고한 공포가 가드너 일가의 주변에 버티고 서서 그들의 운명을 옥죄고 있었건만 그 정체를 알 길이 없었다. 아미는 무척 주저하는 낮빛으로 나훔을 집까지 바래다주었으며, 막내 메르윈의 발작적인 흐느낌을 진정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동원했다. 반면 제나스는 따로 보살피지 않아도 될 만큼 담담한 상태였다. 장남 제나스는 늦게 집에 돌아와 그저 멍한 눈빛으로 앉아 있다가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해냈다. 아미는 제나스를 지켜보며 그나마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메르윈이 간헐적으로 비명을 지를 때마다 2층 다락방에서도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미가 나훔의 아내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나훔은 아내가 몹시 허약해진 상태라며 망설였다.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면서 아미는 겨우 그 집에서 발걸음을 땔 수 있었다. 채소밭과 나무 사이에서 희미한 불빛이 일렁이고,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미는 아무리 우정이 소중한데 해도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를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천만 다행이었다. 농장 주변의 기이한 광경에 약간 동요를 느끼기는 했지만, 만약 목격한 광경을 곰곰이 따져봤다면 아미 또한 완전한 광기에 빠져들었을 것이 틀림없다. 어스름한 황혼녘, 미친 여자와 아이의 울부짖음이 좀처럼 꺾가에서 떠나지 않는 채로 그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그로부터 나흘 후, 나훔은 새벽 여명을 등지고 아미의 부엌으로 뛰어 들었다. 아미가 자리에 없었지만, 그는 피어스 부인의 소매를 붙잡고 또 한 번의 절망적인 소식을 토해냈던 것이다. 피어스 부인은 마음을 다해 나훔의 얘기를 들어주었지만, 그녀 역시 온몸에 한기가 돋는 것을 어찌지 못했다. 이번에는 메르윈이었다. 그 아이가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 한밤에 등잔불과 들통을 들고 우물을 향한 아이가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는 며칠 동안 완전히 낮이 나간 상태였고, 무엇이든 눈에 떨어 때마다 비명을 질러냈다고 했다.

메르윈이 실종되기 직전 마당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나훔이 부랴부랴 우물가로 달려갔지만 아이는 이미 없어진 후였다. 아이가 들고 나간 등잔불의 불빛도 보이지 않았고, 아이의 흔적도 온데간데없었다. 문득 나훔은 등잔불과 들통도 함께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새벽녘까지 밤새 숲과 들판을 헤매었지만, 나훔이 발견한 것은 우물가에 남겨진 기이한 물체뿐이었다. 녹다 만 철제 물건으로 상당히 찌그러져 있었지만, 나훔의 생각에는 메르윈이 가져갔던 등잔처럼 보였다. 한편 반원형 손잡이와 뒤틀린 철제 버팀목으로 보아 들통의 잔해도 남아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이 전부였다.

나훔이 간밤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동안 피어스 부인은 멍하니 귀를 기울였고, 마침 집에 돌아온 아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애처롭고 당혹스러울 뿐이었다. 메르윈이 실종된 사실을 주변에 알려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미 사람들이 나훔 가드너 일가를 피한지 오래됐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아컴 시내에 도움을 청해 보았자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과 조롱뿐일 터였다. 새디어스가 죽었고, 이제 메르윈이 사라졌다. 어떤 형제가 즐기치게 다가오고 있으며, 곧 그 모습과 음향을 드러낼 것만 같았다. 나훔은 잠시 후 집으로 향하며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제나스와 아내를 돌봐 달라고 아미에게 부탁했다. 아미는 나훔의 얼굴에서 뭔가 심판의 순간이 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왜 하필 자신의 친구 나훔에게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가 아는 한 나훔은 신앙심이 독실하고 큰 욕심 없이 성실한 삶을 살아온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주 넘게 아미는 나훔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줄곧 전전긍궁하던 터라, 아미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가드너 농가를 찾아갔다. 불을 땀 흔적조차 보이는 앓는 큼지막한 굴뚝을 바라보며 아미의 근심은 순간 절정에 달했다. 잿빛으로 시든 풀밭과 낙엽, 낡은 건물 벽과 박공에서 부스스 늘어진 덩굴손, 11월의 창공을 향해 헐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나무들, 농가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아미는 나무 가지가 기이하게 기울어져 있는 모습에서 뭔가 악의적인 기운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섬뜩한 전율을 느꼈다.

그러나 다행히 나훔은 살아 있었다. 병든 채 천장이 야트막한 부엌 소파에 누워 있었다. 제나스를 부르며 간단한 심부름을 시키는 등 정신은 아직 온전한 것 같았다. 집 안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추웠다. 아미가

줄곧 몸을 떨자, 나훔은 나무를 더 가져오라며 그때까지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제나스에게 고함을 질렀다. 움푹한 벽난로는 행하니 빈 채 거센 바람에 쫓긴 매연이 굴뚝 밑으로 시커멓게 가라앉을 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의 말대로 땀감인 것 같았다. 이윽고 나훔은 아미에게 땀감을 더 가져오면 좀 편해질 것 같다며 입을 열었다. 그제서야 아미는 사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꾀꾀했던 나훔의 정신력이 마침내 파탄에 이른 게 분명했다. 그 가없는 농부에겐 더 이상 절망할 여지도 없었던 것이다.

조심스럽게 질문을 해 보았지만, 아미는 제나스의 행방에 대해 아무런 얘기도 들을 수 없었다.

“우물에 있어……. 우물에서 살고 있다고.”

그것이 아들의 행방을 묻는 질문에 아버지가 한 답변의 전부였다.

문득 가드너 부인에 대한 생각이 아미의 뇌리로 스쳐갔다. 그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가드너 부인에 대해 물었다.

“집사람? 여기 있잖아!”

가없는 나훔은 느닷없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고, 아미는 직접 가드너 부인을 찾아볼 생각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헛소리를 지껄이긴 해도 별 일 없으리라는 생각에 나훔을 그대로 놔둔 채, 아미는 뼈저리게 계단을 올라갔다. 점점 악취가 진동할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네 개의 방문 중 한 곳에만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아미는 1층에서 가져온 열쇠꾸러미를 더듬거리며 열쇠를 맞춰 나갔다. 가까스로 문이 열리자 아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 흰색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작은 창문마저 널빤지로 막아놓은 상태라 방 안은 몹시 어두웠다. 아

미는 널찍한 마룻바닥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악취를 참기 어려웠으므로 그는 밖으로 나갔다가 숨을 몰아쉬 후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검은 물체가 보이는 것 같았다. 그는 그쪽으로 다가갔고, 이내 단말마의 비명을 질렀다. 아미는 비명을 지르는 동안에도 순간적으로 구름이 창가를 뒤덮는 느낌을 받았다. 곧바로 기이한 증기가 그의 몸을 휘감았고, 그는 미친 듯이 몸을 털며 증기를 쫓아내려고 애썼다. 눈앞에서 기묘한 색깔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그가 발작적인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언젠가 대학 교수 중 한 사람이 해머로 부순 작은 구체와 그 해 봄에 싹을 틔웠던 병적인 채소의 색깔을 떠올릴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당시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이 불경스러운 괴물이 새디어스와 가족의 운명을 농락했다는 확신뿐이었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그 괴물이 아주 느릿느릿 움직이며 끊임없이 여러 갈래로 분열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아미 노인은 그때의 광경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다락방 구석에서 보았다는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도 다신 입에 올리지 않았다. 세상에는 불가해한 일들이 많으며, 평범한 인간에게도 자연의 가혹한 형벌이 내려질 때가 있는 법이라고 덧붙였을 뿐이다. 나는 그 물체가 다락방에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그게 아직 건재하다면, 그건 인간에게 영원한 저주와 고통을 의미하는 것일 테니까 말이다. 아무리 건장하고 굳센 농부라고 해도 정신을 잃거나 미쳐 버릴 상황이었지만, 아미는 가까스로 다락방 문을 닫고 그 저주스러운 비밀에 다시 자물쇠를 채울 수 있었다. 이제 나훔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적당한 곳으로 데려가 요양을 취해야 할 터였다.

아미가 어두운 계단을 내려갈 때, 아래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

다. 방금 전 다락방에서 온몸을 휘감던 차갑고 끈적끈적한 기체가 떠올라 아미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겁에 질려 계단에 멈춰서 있는데, 아래쪽에서 여전히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육중한 물체가 질질 끌려가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뭔가를 빨아들이는 듯한 교활하고 역겨운 음향에 소름이 짝 끼쳤다. 다락방에서 맞닥뜨린 정체불명의 물체가 또 떠올랐다. 자비로운 신이시여! 혼을 빼놓는 저 악몽 같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아미는 안절부절못한 채 사시나무 몇몇 계단에 못 박혀 있었다. 머릿속이 시커멓게 타 들어가는 것 같았다. 지척에서 느껴지는 극악무도한 존재와 소리와 어둠, 가파른 계단의 위태롭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 신이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는 주위의 목재로 된 물건마다 희미한 빛이 비추는 것을 지켜보았다. 계단이며, 난간, 천장과 대들보까지 온통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바깥에서 아미의 말이 미친 듯 울부짖는가 싶더니 이내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다. 잠시 후 말발굽 소리와 마차의 덜커덕거림도 컷가에서 사라져 버렸다. 공포에 사로잡힌 아미는 어두운 계단에 홀로 남아 무엇이 그토록 말을 놀라게 했을까 섬뜩한 추측을 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보면 우물가가 분명했다. 우물가에 말을 묶어 놓았고, 방금 전 마차가 덜커덕거리며 사라진 것도 우물의 갯돌과 주변 돌맹이를 스쳤기 때문이었다. 낡아빠진 목재 물건들에서는 여전히 푸른빛 인광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참으로 낡고 오래된 집이었다. 건물 대부분이 1670년 이전에 지어진 모습 그대로였으며, 박공지붕을 얹은 것도 1730년 직후였으니까 말이다.

아래쪽에서 바닥을 긁어대는 소리가 점점 또렷해졌고, 아미는 다락

방에서 가져온 몽둥이를 짹 움켜쥐었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선 후, 부엌을 향해 뛰어들었다. 그러나 이내 그는 딱하니 자리에 멈춰서 버렸다. 그가 예상했던 섬뜩한 괴물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일정한 형체를 모방하면서 움직이고 있었다. 스스로 기어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했고, 외부의 힘에 의해 질질 끌려가는 것 같기도 했다. 아무튼 그 집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은 분명했다. 아미는 실체 없는 형체에 가까이 다가갈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그것은 점점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나훔, 저게 뭐야? 뭐냐고?”

아미가 그렇게 묻자, 갈라지고 터진 나훔의 입술 사이로 괴이한 말들이 흘러나왔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냐……. 색깔……. 타고 있어. 차갑고 축축해. 그러나 타고 있어……. 우물에 살고 있지. 내가 그곳으로 보냈으니까. 연기 같기도 하고……. 지난 봄에 핀 꽃 같기도 하고, 밤이면 우물이 빛나지. 새디어스와 메르윈, 제나스 모두 살아 있어. 무엇이건 닥치는 대로 생명을 빨아먹지……. 그 돌 속에서……. 그 돌 속에 실려 와서 어디든 돌아다니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그 둥그스름한 작은 물체, 교수가 돌에서 파내 부숴 버린 그 물체……. 꽃과 채소와 똑같은 색깔이지. 씨앗, 씨앗에서 점점 자라거든. 이번 주에 처음으로 내 눈앞에 나타났지. 그리고 제나스를 데려갔어. 알잖아, 제나스가 얼마나 튼튼한 아이였는지 말이야. 정신을 쏙 빼놓고는 순식간에 낚아채 버렸을 거야. 그리고는 우물 속에서 태워 버리지. 자네 말이 맞았어. 우물에 악마가 들었거든. 제나스는 우물에서 다시 나오지 않았지. 벗어날 수 없어……. 뭔가 다가오지만 발버둥 쳐도 소용없는 일……. 아미, 집사람은 어딿

지? 머리가 이상해……. 집사람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준 지가 얼마나 됐을까……. 놈이 집사람을 빼앗아 갔어. 그 색깔……. 집사람의 얼굴에서도 밤마다 그 색깔이 나타났지. 태우고 빨아들이고…….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온 것이 분명해. 왜, 그때 교수들도 그렇게 말했잖아, 그 말이 맞았어. 아미, 조심하게. 그놈이 또 다른 짓을 할 테니까. 생명을 빨아서…….”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나훔의 얼굴로 변해 말을 하던 형체가 그 순간 폭 꺼져 버리면서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나훔의 집 창가를 통해 우물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차나 떨어진 물건의 흔적은 없었으므로, 물방울 소리는 뭔가 다른 의미였다. 나훔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직후, 무엇인가 우물 속으로 빠진 것이었다. 그는 붉은 색 체크무늬 식탁보 위에 남겨진 형체를 지켜보다 비틀거리며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1만2천여 평의 목장으로 난 오르막길을 오르고, 북쪽 도로와 숲을 따라 집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비틀거렸다. 말과 마차가 사라져 버린 앞마당의 우물가를 지나갈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아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사라진 말과 마차의 모습이 보였고, 아내는 남편 걱정에서 사색이 된 얼굴이었다. 그는 자세한 설명 없이 아내를 안심시킨 후, 곧장 아침으로 가서 가드너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경찰에 신고했다. 자세한 내막은 생략한 채 그저 나훔과 그의 아내, 새디어가 죽었으며, 가족이 폐죽음 당했던 것처럼 그들도 이상한 병에 걸려 죽은 것 같다고 말했다. 메르윈과 제나스가 실종됐다는 소식도 전했다. 경찰관들은 나훔의 말에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했고, 결국 아미는 경찰관 세 명과 검시관, 전에 나훔의 집에 들른 적 있는 수의사를 대동하고

그 끔찍했던 농가를 다시 찾아야 했다. 이미 날이 저물어 갔고, 아미는 그 저주받은 곳에서 마주할 어둠이 두려웠지만,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간다는 사실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고 싶었다.

마부까지 합쳐 여섯 명이 짐마차를 타고 아미의 마차를 따라 나훔의 농가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4시경이었다. 끔찍한 범죄에 어느 정도 이골이 난 경찰들과 의사도 다락방과 부엌 식탁 주변에서 마주친 광경에 망연자실 할 말을 잃었다. 잿빛만 무성한 황량한 광경도 끔찍했거니와, 갈기갈기 찢겨지고 토막난 두 개의 시신이 사방에 뒹굴고 있었던 것이다. 누구도 그 광경을 오랫동안 지켜볼 수 없었으며, 검시관마저 별달리 조사해 볼 필요도 없을 것 같다며 꿈무늬를 뺐다. 그러나 표본을 분석할 필요는 있었으므로 서둘러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채취했다. 그때 채취한 두 병 분량의 분진이 대학교 실험실로 보내졌으나 사건의 수수께끼를 풀기엔 역부족이었다. 분광기 밑에서 표본은 정체불명의 스펙트럼을 나타냈고, 그 기이한 줄무늬는 1년 전 유성 표본을 관찰할 때와 똑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스펙트럼의 특징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표본 성분이 알칼리성 인산염과 탄산염이라는 사실만 밝혀지고 끝나기에 이르렀다.

아미는 경찰관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 우물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 점점 일몰이 다가오면서 속히 그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만 간절했다. 그러나 초조한 마음 때문에 우물가를 자꾸 훑기 거렸고, 그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이 다그치자 나훔이 우물을 무척 두려워했다는 사실과 메르윈과 제나스의 실종과 관련해 그 우물 속을 찾아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이제 남은 일은 우물에서 물을 빼내고 그 내부를 속히 조사해 보는 것이었다.

우물 속으로 줄줄이 물통이 떨어졌다 올라오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미는 겁에 질려 있었다. 경찰관들은 우물 속에서 숯구치는 악취에 연신 코를 틀어쥐었다. 우물이 그리 깊지 않았으므로 소름끼치는 장면이 펼쳐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메르윈과 제나스가 우물 밑바닥에 있었으며, 대부분 해골의 모습이었다. 작은 사슴과 덩치 큰 개의 해골도 발견됐으며, 그 외에도 무수한 동물의 뼈가 묻혀 있었다. 우물 바닥은 끈적끈적한 분비물이 가득했는데, 작은 구멍에선 거품까지 일었다. 경찰관 한 명이 길다란 막대를 우물 바닥에 찔러 넣어 봤는데, 어느 쪽으로든 막힘 없이 질펀한 땅 밑 깊숙이 파고드는 것이었다.

이제 땅거미가 졌고, 사람들은 나훔의 집에서 등잔불을 가져왔다. 얼마 후, 그들은 더 나올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이후 계획을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집 마당에는 반달이 토해내는 괴괴한 달빛이 찾아들었다. 사람들이 사건의 내막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무리였다. 기형적인 채소와 식물, 가축과 사람을 유린했다는 원인 모를 질병, 우물 속에서 발견된 메르윈과 제나스의 해골 등등 어느 것 하나 그럴듯한 관련성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들도 마을에 떠도는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과 어긋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그대로 믿을 수만은 없었다. 운석이 떨어진 이후 토양이 중독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토양에서 자란 채소나 과일들을 입에 대지 않았던 나훔 가족과 가축의 죽음은 별개의 문제였다. 그렇다면 물 때문일까? 가능성은 충분했다. 우물물을 분석하는 편이 현명해 보였다. 그러나 두 소년을 우물 속으로 뛰어들게 만들었던 광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물 속에서 발견된 다른 동물들, 또 그 뼈가 한결같이 잿빛을 띠고 금방 부

서질 듯 푸석푸석했다는 점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왜 모든 것이 잿빛이며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남아 있는가?

창가 가까이 앉아 있던 사람이 우물가에 일렁이는 빛을 처음으로 목격했다. 이미 사위는 어둠에 잠겨 있었으며, 마당에 희미하게 일렁이는 오싹한 빛은 분명 달빛과는 다른 것이었다. 달빛에 비해 선명한 것이 마치 탐조등에서 뿜어져 나온 불빛 같았고, 특히 텅 빈 우물가의 주변에 기묘한 음영을 만들고 있었다. 몹시 기이한 색깔 때문에 사람들이 우르르 창가로 몰려들자, 아미는 다시 한 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그 색깔이며 스멀거리는 기체의 움직임이 그가 모를 리 없었다. 또 다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초조감이 솟구쳤다. 암석에서 파낸 작은 구체, 괴상망측한 채소와 식물에서도 그와 똑같은 색깔을 보았고, 게다가 그날 아침에 다락방의 작은 창가에서 직접 경험한 일이었다. 그 빛이 순간적으로 번뜩였다가 차갑고 역겨운 기체가 그의 온몸을 더듬듯 휘감지 않았던가? 나훔의 육체와 정신을 빼앗은 것은 그 색깔이었다. 아미는 나훔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작은 구체와 식물을 닮았다는 그 말. 그리고 아미가 도망치는 순간 우물에서 첩병하는 소리가 들려 왔었다. 그리고 지금 또 다시 우물이 악마의 색깔처럼 불길한 빛을 토하고 있는 것이었다.

아미는 자신의 두려움과 팽팽한 긴장감을 과학적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창가에서 기체를 보았으며, 어둡고 황량한 풍경에서 안개처럼 일렁이는 푸른 인광을 보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분명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았다. 그는 뭔가에 홀린 듯했던 친구의 말을 떠올렸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온 것이 분명해. 왜, 그때 교수들도 그렇게 말했잖아…….’

길가에 세워 놓은 말 세 필이 날카롭게 울며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문가로 뛰어나가는 순간, 아미는 떨리는 손으로 그를 막아섰다.

“나가면 안 돼요. 망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빨아먹는 괴물이 저 우물 속에 있다고 나훔이 말했어요. 지난해 6월, 이곳에 떨어진 유성에 박혀 있던 작고 둥그런 물체에서 그 괴물이 자랐다고 말입니다. 빨아먹고 태워버리는 괴물! 색깔이 뭉쳐진 구름 같은 놈이죠. 저기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본다고 해도 그 정체를 설명하긴 힘들어요. 어쨌든 나훔 말로는 그게 살아 있는 생물을 먹어 치우면서 점점 강해진다고 했어요.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하더군요. 지난해 대학 교수들이 말한 것처럼 유성과 함께 외계에서 날아온 사람 비슷한 존재일지도 몰라요. 움직임이나 생김새가 우리와 완전히 다르지만요. 아무튼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찾아온 놈이에요.”

사람들은 우물가의 빛이 점점 강렬해지는 것을 지켜보며 멍뭉한 채, 사납게 울부짖는 말들의 비명 소리를 듣고 있었다. 말들의 행동은 정말 끔찍한 일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저주받은 낡은 농가는 공포로 짓눌려 있었고, 집 안과 우물에서 각각 두 구씩 발견된 시신의 잔해들 및 눈앞에서 일렁이는 불경한 빛깔에 모두들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아미는 사람들이 선불리 행동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지만, 그날 아침 다락방에서 기체가 달려들었을 때 어떻게 자신이 무사할 수 있었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딱히 특별한 방법을 취했다기보다는 그저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행동한 것 같았다. 밤의 대기를 떠도는 그 존재의 정체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를 것이었다. 그때까지 우물 속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돌변할지 몰랐다. 게다가 걸

으로 보기에 그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으며, 달빛까지 기이한 색깔을 머금은 가운데 무슨 고약한 의도를 금방이라도 드러낼 것만 같았다.

그런데 창가에 있던 경찰관 한 명이 느닷없이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을 따라 위쪽으로 향해진 사람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일순 멈추어 버렸다. 말이 필요 없었다. 마을에 떠도는 소문이 온전히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이었으며, 이후 누구도 아킴에서 그 기이한 날에 대해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된다는 금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 시간 바람은 전혀 불지 않았다. 잿빛으로 반짝이던 울타리의 잔가지도, 짐마차의 지붕도 움직임이 없을 만큼 바람 한 점 없었다. 그런데도 무서운 적막감 속에서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간질병 환자처럼 달빛 창공을 향해 발작적으로 뒤틀리며, 땅속뿌리를 타고 올라온 지독한 공포에 휘둘리듯 허공을 마구 핏잡는 것이었다. 모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때 검은색 구름 하나가 달무리를 지나갔고, 악다구니를 쓰던 나뭇가지들의 그림자도 조금씩 움직임을 멈추기 시작했다. 붓물 터지듯 한순간에 비명이 터져 나왔으며, 놀라움에 억눌려 있던 단말마의 비명이 쇳소리처럼 여기저기서 토해졌다. 나뭇가지의 흔들림이 잦아지는 것과는 달리 그들의 공포는 사그라지지 않았으며, 나무 꼭대기에 미세한 빛들이 일렁이는 순간 그들의 공포감은 훨씬 격렬해졌다. 세인트 엘모²⁴⁾의 불과 오순절 사도의 머리에 강림한 불꽃처럼 나뭇가지 끝에는 불빛이 가득했다. 시체로 든든히 배를 채운 반딧불들이 저주받은 초원에서 지옥의 무곡에 맞춰 춤을 추는 광경이었으며, 그 색깔은 당연히 아미가 기억하는 미지의 침입자와 똑같은 것이었다. 우물에서 분출한 푸른 빛 광선이 점점 강렬해졌고, 완전히 닳은 사람들은 극도의 혼돈 속에서 인간의 상상력을 압도하는 해괴

한 그림자와 운명을 예감할 뿐이었다. 곧이어 쇠도하듯 우물에서 나온 기묘한 색채와 무형의 기체 덩어리는 곧바로 하늘을 향해 비상했다.

수의사가 비틀거리며 문가로 다가가 남은 빗장마저 걸어 잠갔다. 한편 아미는 나무마다 훨씬 또렷해진 빗줄을 보라며 떨리는 음성으로 간신히 말했다. 겁에 질린 말들의 울음소리와 밧길질은 절정으로 치달았지만, 누구도 감히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 빛이 강렬해질수록 나뭇가지들은 하나같이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느라 기를 쓰는 모습이었다. 경찰관 한 명이 말없이 서쪽 돌담 옆의 헛간과 벌집을 가리켰다. 그곳에서도 빛이 일렁이기 시작했지만, 마차 주변에는 별 이상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거친 소란과 말발굽 소리가 터져 나왔고, 아미는 바깥의 상황을 좀 더 제대로 살필 요량으로 등잔 불빛을 어둡게 했다. 날뛰던 말들이 마차를 끌고 마구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사람들은 경악에 빠진 채 혼잣말처럼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생물을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짹 퍼져 있어요.”

검시관의 말에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았지만, 우물 바닥에 내려갔던 경찰관은 장대로 바닥을 휘저은 게 놈을 자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말 끔찍하군요. 바닥 밑에는 분명 아무것도 없었어요. 분비물과 거품으로 가득 차 있었을 뿐, 그저 뭔가 깊숙이 숨어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

아미의 말은 여전히 길가에서 귀청이 떨어져라 울었지만, 아미는 속수무책으로 중얼댔 뿐이었다.

“그 돌에서 나왔어요. 저 밑에서 자란 거죠. 생물을 잡아 허기를 채우고, 정신과 육체까지 빼앗아 버리면서 말이죠. 새디어스와 메르윈, 제나스와 가드너 부인, 그리고 나훔을 차례차례 능멸한 겁니다. 모두 우

물물을 먹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변화가 생긴 거고요. 이 세상 밖에서 왔다가 이제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가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색깔이 기둥처럼 빛을 발하며 묘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사람들마다 보이는 형태가 달랐으며, 급기야 가엾은 아미의 말은 현실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비명을 질렀다.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귀를 막았다. 아미는 치밀어 오르는 공포와 현기증 때문에 창가에서 물러서야 했다.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가 다시 창가로 눈을 돌렸을 때, 가엾은 짐승은 산산이 조각난 마차의 잔해 속에 꼼짝없이 누워 있었다. 다음 날 아침에야 아미의 말을 물어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곧바로 경찰관 한 명이 집 안에 뭔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등잔불을 완전히 꺼 버리자, 어둠 속에서 점점 집 안 전체에 퍼져나가는 푸른빛이 나타났다. 마룻바닥, 붉은 색 카펫, 작은 쇠창살 어디에나 빛이 흔들렸다. 곧이어 푸른빛이 천장과 모서리를 오르내리며 선반과 벽난로에서 번쩍이는가 하면 문짝이며 가구를 빛으로 물들이는 것이었다. 시시각각 빛이 밝아졌고, 급기야 누구든 살아남으려면 속히 그 집을 떠나야 한다는 절박감이 팽배해졌다.

아미는 사람들을 이끌고 뒷문을 통해 목초지 쪽으로 들어섰다. 꿈속을 헤매듯 그들은 발을 헛디디기 일쑤였다. 아무도 고지대 멀리 다다를 때까지 돌아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앞마당을 지나가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었다. 하늘을 들쭉실 것만 같았던 나뭇가지들도 이제는 일정한 높이 이상 곧추서지 않았다. 채프먼 개천의 다리 위를 지나칠 즈음, 시커먼 구름이 달빛을 가리는 바람에 그들은 더듬더듬 가까스로 목초지까지 이르렀다.

이윽고 그들은 산골짜기를 향해 돌아서서 이미 아득하게 멀어진 가드너 농가를 바라보았다. 그 주변 땅에서 끔찍한 광경이 연출되고 있었다. 기묘한 색채들이 서로 뒤섞여 농가를 휘감았으며, 나무와 건물, 수풀, 목초까지 죄다 금방이라도 부서져 버릴 것처럼 오싹한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나뭇가지들은 여전히 괴괴한 불꽃을 끝에 매달고, 하늘을 향해 팽팽하게 일어난 모습이었다. 불꽃들은 서서히 농가의 대들보와 헛간과 축사 쪽으로 달라붙기 시작했다. 푸셀리의 그림에서나 볼 수 있을 광경이었으며, 정체 모를 빛이 농가 주변을 완전히 장악한 형국이었다. 우물에서 나온 치명적이고도 은밀한 색갈들이 미지의 스펙트럼으로 소용돌이치며 이곳저곳을 더듬거리면서 때론 겹쳐지다가 혀를 날름거리듯 천천히 빛을 발했다. 그러다가는 어느 순간 팽팽해지면서 끝을 알 수 없는 기묘한 사악함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끔찍한 색채가 하늘을 향해 로켓이나 유성처럼 수직으로 솟구쳐 올랐다. 아미와 경찰 관계자들은 숨죽인 채 그 색채가 구름 속에 난 구멍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누구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아미는 미지의 색채가 은하수 저편으로 사라진 자리에 백조자리와 데네브²⁵⁾가 반짝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내 그의 눈길은 다급히 산골짜기 속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폭발음이 들려왔던 것이다. 그러나 소리뿐이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나무가 쪼개지고 넘어졌지만, 당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결코 폭발은 아니었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그 처참한 농가에서 곧바로 격렬한 빛이 터지고, 비범한 불꽃과 물질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다는 것을 보면, 폭발과 비슷한 일이 벌어진 모양이었다.

사람들은 강렬한 빛에 눈을 가렸고, 이윽고 하늘에서는 지구상에 존

재하지 않는 색채와 환상적인 파편들이 폭우처럼 퍼붓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뿌옇게 이는 기체들을 질겁하며 떨어냈지만, 그것들은 이내 사라져 버렸다. 나훔의 농가가 일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린 것도 그 순간이었다. 남은 것은 이제 그들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암흑뿐이었다. 한편 별과 별 사이, 그 성간 공간에서 거친 돌풍이 일어 모든 것을 집어삼킬 태세였다. 돌풍은 악을 쓰고 울부짖으며 우주의 광기를 뽐내듯 들판과 나자빠진 잡목을 유린해 갔다. 달빛이 다시 나훔의 농가를 비추었고, 과연 그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고자 기다리기에는 그들의 공포와 피로가 너무도 짙었다.

일곱 명의 사내는 북쪽 도로를 따라 아컴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고, 공포에 짓눌려 누구도 감히 입을 떼려하지 않았다. 누구보다 충격이 컸던 아미는 사람들에게 잠시 자신의 집에 들러 쉬었다가기를 간청했다. 혼자서 바람이 휘몰아치는 황량한 숲가를 지나 집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던 탓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계속해서 끔찍한 일을 겪어 왔으므로 그만큼 고통의 골도 깊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후 오랫동안 그날에 대해 어떤 말도 입에 올리지 않았는지 모른다. 그들이 아미가 청한 대로 폭풍이 소용돌이치는 언덕으로 발걸음을 돌렸을 때, 아미는 문득 불행한 친구가 잠들어 있을 황폐한 계곡의 어둠 속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뭔가 은밀하게 움직이더니 미지의 색채가 하늘로 솟구쳤던 곳으로 다시 가라앉는 것이었다. 색채였다. 그는 그 색채를 알아볼 수 있었다. 우물 속에 여전히 색채의 마지막 잔영이 남아 있었던 것인데, 그 이후 아미는 그 우물을 다신 내려다보지 않았다.

아미는 다시 그곳을 찾지 않을 생각이었다. 기이한 날 이후 44년이

흘렀다. 그는 저수지가 들어서고 그곳이 물속에 잠긴다는 소식에 안도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지나쳤던 그 우물 입구에서 햇빛이 묘한 색깔로 변화하던 모습을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저수지의 수심이 아주 깊었으면 하고 바랐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 물을 마실 생각은 없다. 나아가 다시는 아침 주변에 걸터앉아도 안 할 마음이었다.

사람들은 아미의 집에서 새벽을 기다렸고, 날이 밝자 아미는 그중 세 명과 함께 다시 나훔의 농가를 찾아갔다. 그러나 거짓말처럼 어디에도 파멸과 혼돈이 벌어진 흔적이 없었다. 그저 굴뚝의 벽돌과 지붕의 갖돌, 몇몇 광석과 금속 조각들이 텅굴고, 우물 가장 자리가 약간 부서져 있을 뿐이었다. 땅속에 묻어준 아미의 죽은 말과 고쳐서 쓰면 됨직한 마차 외에는 아무것도 간밤의 비극을 말해주지 않았다. 채소밭은 잿빛 먼지로 덮여 있었고, 이후 그곳에서는 어떤 작물도 자라지 않았다. 농가 주변은 지금까지도 숲과 들판 사이에서 산성 물질에 부식된 채로 남아 '마의 황무지'로 불리고 있지만 직접 그곳에 들르는 마을 사람은 없었다.

아미의 이야기에 비해 마을에 떠도는 소문은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다. 도시 사람들과 대학 연구진들이 버려진 우물의 수질, 혹은 바람 없는 날에도 늘 흩날린다는 잿빛 먼지를 분석하러 오거나 식물학자들이 그곳의 놀라운 식물 군집을 연구하고 돌아갈 때마다 소문은 더욱 기이해졌다. 조금씩 마의 황무지가 팽창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1년에 2, 3센티미터씩 넓어진다고도 했다. 여전히 봄날이면 그 주변 식물에서 묘한 색깔이 나타나며, 겨울이면 눈 위에 남아 있는 짐승의 발자국이 불길하기 짝이 없다는 말이 끊이지 않았다. 다른 곳에 비해 마의 황무지에는 눈이 거의 쌓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동력 시대로 접어든 이

후 거의 자취를 감춘 말들도 산골짜기의 침묵을 접하면 이내 고개를 떨구고 겁을 먹으며, 사냥꾼은 잿빛 먼지 가까운 곳에서는 사냥개를 믿지 말라는 얘기도 들려왔다.

사람들은 정신에 미친 악영향이 대해서도 숨기려 들지 않았다. 나훔 일가에 변이 생긴 이후 마을에서 미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고,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곳곳하게 마을을 지킬 것 같던 사람들마저 시간이 지나면서 이내 그곳을 등졌고, 사정을 모르는 외지인들만이 찾아오곤 했다. 그러나 그들도 오래 머물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거칠고 음산하기 짝이 없는 악령의 속삭임 때문에 외지인들이 견디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밤중에 그 마을에서 꾸는 꿈들은 어느 곳보다 끔찍한 악몽이라는 말도 나왔다. 어둠의 제국과도 같은 마의 황무지가 사람들에게 병적인 상상력을 자극한 것도 당연할지 모른다. 그곳에서 여행객은 누구나 한 번쯤 기괴한 분위기에 빠져들었고, 화가들은 어떤 정체의 눈길과 혼이 느껴지는 울창한 숲을 화폭에 담다 몸서리를 치곤 했다. 솔직히 나도 아미의 이야기를 듣기 전 홀로 그곳을 지나칠 때 떠도는 소문과 비슷한 감정에 빠져든 것이 사실이다. 땅거미가 질 무렵, 창공의 깊은 공허감이 내 영혼을 사로잡는 것 같아 구름이라도 끼었으면 하고 바랐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나는 개인적인 의견은 말하고 싶지 않다. 아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미 외에는 적절한 답을 해줄만한 인물도 없다. 아침 사람들은 아예 그 기이한 날에 대해 입에 올리기를 꺼려하며, 운석 표본을 채취하고 그 속의 작은 구체를 직접 목격했다는 대학 교수 세 명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물론 다른 구체가 남아 있을 가능성은 크다. 누군가 그 존재의 먹이가 될지 모르며, 이미 그렇게 희생된 사람도 있을 것이

다. 나는 그것이 아직 우물 속에 남아 있으리라 확신하는 편이다. 우물
가에서 햇빛이 이상하게 변하던 모습을 나는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
다. 황무지가 해마다 조금씩 넓어진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분명 놈의
성장이나 번식의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것이 악마의 후손이든 아니든,
쉽게 목표물의 혼과 육체를 점령하고 빠른 속도로 세력을 확장할 것이
다. 혹시 그날 하늘을 향해 기립하듯 가지를 뻗었다는 나무들의 뿌리
깊숙이 은둔해 있는 것은 아닐까? 요즘 아침에서는 밤마다 빛을 발하
며 움직인다는 큼지막한 참나무 이야기가 나돈다고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마 신만이 알 것이다. 아미의 설명을 토대로 추
측해 본다면 기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기체는 우리의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의 법칙을 따른다. 우리가 망원경으로 관찰하고 인화지에 나
타낼 수 있는 그런 세계와는 다른 미지의 공간 말이다. 아직까지 천문
학자들이 밝혀낸 외부 세계에서 생명의 기운은 감지되지 않았다. 아니
면 그것이 단지 색채에 불과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경계 너머 무한한 무형의 왕국에서 찾아온 무시무시한 사
자(使者) 말이다. 단지 그 모습만 봐도 우리를 경악과 충격에 빠뜨릴 만
한 존재와 그들이 태어난 우주의 어느 골짜기.

나는 아미가 의도적으로 내게 거짓말을 했을지 모른다는 의혹도 품
고 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기피하던 광인의 미친
언어로만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다. 무시무시한 미지의 존재가 유성을
이용해 그 언덕과 골짜기를 찾아왔으며,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다. 어
서 저수지가 완성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아미에게 아무런 일도 벌어
지지 않기를……. 아미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알고 있으며, 그 때문에
불길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는 왜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걸까? 어떻

게 나훔의 마지막 말을 그토록 정확히 기억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없
어……. 뭔가 다가오지만 발버둥 쳐도 소용없는 일…….' 아미는 아주
좋은 사람이다. 저수지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 책임자에게 그를 가까이
서 살펴달라고 편지를 써야겠다. 그가 잿빛으로 뒤틀려 파삭파삭한 형
체로 변하는 모습은 상상도 하기 싫으니까. 하지만 나는 오늘도 그 악
몽을 꿀 것 같다.

- 18) 아킴(Arkham): 아킴은 러브크래프트 소설에 등장하는 가상공간 중에서도 중요한
배경이다. 아킴이 처음으로 언급된 소설은 「그 집에 있는 그림」(1920)이다. 현재
매사추세츠의 탠버스 지역인 세일럼을 모델로 삼았다고 알려져 있다. 아킴은 이후
오거스트 릴레스와 윈드레이가 러브크래프트 작품을 전문적으로 출간하기 위해 세
운 출판사 이름이 되기도 한다.
- 19) 살바토르 로사(Salvator Rosa, 1615~1673): 주로 야성적이고 황량한 풍경화와 동판
화를 그렸다. 천둥과 번개 등 풍경 묘사에서 악마적이고 초자연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 20) 미스캐토닉(Miskatonic): 미스캐토닉이라는 지명은 아킴과 함께 「그 집에 있는 그
림」에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 이후 많은 작품에 등장한다. 미스캐토닉 대학이라는
가상의 대학이 처음으로 언급된 작품은 「허버트 웨스트-리애니메이터」이다.
- 21) 비드만스테텐(Widmannstatten) 구조: 철운석을 질산에 넣어 가공할 때 줄이 교차해
서 나타나는 무늬.
- 22) 마뚱(woodchuck): 다람쥐과 동물로 북미에 분포함.
- 23) 얇은부채: 잎이 넓고 꽃이 독특한 다년성 초본 식물. 북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서식하며, 스텝크 배추skunk-cabbage라고 불리는데, 이유가 독특한 냄새 때문이라
는 설이 있다.
- 24) 세인트 엘모의 불(St. Elmo's fire): 지표면의 돌출된 부분에서 방출되는 방전 현상.
- 25) 데네브(Deneb): 백조 자리에 있는 알파 별.